

샬롬 !!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 8장 13~14절-

우리들의 일상은 우리의 손으로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을 흐트러지고 곤고하며 복잡함으로 얽혀 모든 주도권을 빼앗기고 무엇엔가에 매여 살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갈망함으로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이땅 르완다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이들과 평화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내과 박준범, 소아과 백지연 선교사님 부부가 안식년을 떠났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별은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분의 쉼과 충전을 위해 기쁘게 보내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평안과 두려움이 함께 함을 느낍니다. 두 분의 공석으로 1년 동안 저희 부부가 나누리 병원 운영을 해야하는 부담 때문입니다. 아내 김남숙선교사는 원장대행으로 모든 결정과 사인을 하고 저는 병원 재정과 유지를 맡아 회계관리, 약품, 직원급여, 기타 유지보수의 책임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나누리 병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에 순종하며 올 한해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똑바로 우아하게 걸겠습니다.

<<또 이사를 했습니다>>

르완다 생활 5년에, 4번째 이사입니다. 점점 짐이 많아져 조금 힘들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월세도 줄이려고 병원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은 저희 부부밖에 살지 않는 현지 마을이기에 보안과 물 급수 사정이 어려워 보이지만 지금은 이 선택이 최선이기에 결정했습니다.

<<영성을 위해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복학 시기를 놓쳐 재적 되었던 신대원에 재입학을 했습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온라인 반이 신설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지에서 영적 고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다시 시작했는데, 덕분에 병원 운영의 스트레스를 더 큰 스트레스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 6개월 단기봉사 오신 사공 민 선생님의 르완다 의사 면허와 비자가 기도해 주셔서 기록을 세울정도로 빠르게 3개월 만에 허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 사공 민 샘의 봉사 이후인. 9월부터 6개월 이상 의료 봉사하실 닥터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



<<스프린트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목 골절이나, 손가락, 전완이 금이 간 환자들에게는 후원받은 스프린트로 고정해 주고, 1주일 후에 다시 내원하라고 말합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거듭 말해도 손을 사용하여서, 뼈들이 틀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생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스프린트 수량을 많이 가져올 수 없어 무상대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현실입니다만 도울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1. 1년 나누리 병원의 안녕과 운영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에게 병원 사역의 강도가 한층 올라갔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맡자마자 두 가지 일이 발생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업무였습니다. 의약품 을 주문하면 선입금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업무는 밀려 있고, 환자들은 기다리는데, 설상가상 인터넷은 느리고, 겨우 송금은 했는데 거래처는 입금이 안 됐다고 난리고, 괜한 자괴감에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신을 보고 나서야 잠시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전산을 막아놓았던 것을 알게 되어 직접 방문해서 잘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병원 운영을 맡은 지 이틀째 병원 사무장 '파스칼'이 은행에 입금해야 할 병원 수입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직원에 대한 신뢰 문제,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위해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도난당한 돈은 5일 후에 도로 찾았습니다. 이런저런 사건들 덕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2. 병원 스텝들과 매주 목요일에 드리던 예배 시간을 화요일로 옮기고, 전 스텝이 함께 예배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님과 온전한 교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곳은 제노사이드(민족 학살) 30주년입니다. 그리고 7월에는 대통령 선거(독재 30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들의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 있는 제노사이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올해 대선이 안전하게 잘 치러지길 기도해 주십시오.

4. 저희의 딸들 소식입니다. 간호사인 첫째와 둘째는 한국의 의료대란이지만 암병동에 근무를 하다 보니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는 가운데, 가정예배를 통해 주님앞에 서 있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막내는 대학원 개강을 하였고, 5월 교생 실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님들의 기도 사역이 그 어느 해보다 필요합니다.

“여호와와 의 손”이 나누리병원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길, 저희 부부에게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소통을 위한

카카오톡 아이디: caleb675869

페이스북: 나그네

후원계좌: 기업은행 907-1202-0615 <최황덕>

2024, 4, 24 르완다에서 최황덕, 김남숙선교사 드림.